

2010. 6. 7 제240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0. 6. 7 제240호

산업·경제

1.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높이기 위해 '혁신쿠폰' 도입 (독일)

건강·복지

2. 아동 조기교육 향상을 위한 'Early Learn NYC' 프로그램 시행 (뉴욕)
3. '런던 서베이' 결과, 시민의 83%가 삶에 만족 (런던)
4. 학생의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해 직업 체험 프로그램 마련 (베를린)
5. '육아를 배려한 주택 가이드북' 작성 (도쿄)

행정·재정

6. 市정부와 시민 간 파트너십 활성화 정책 추진 (영국 옥스퍼드市)

도시환경

7. 건물 옥상에 '쿨 루프'(Cool Roof) 설치 장려 (뉴욕)
8. 소형 화물차와 중·소형 버스도 '저배출 지역' 진입 규제 (런던)

9. 대학과 대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카본 오프셋' 사업 시행 (일본)

도시교통

10. 도시를 대표하는 미래지향적인 버스 디자인 발표 (런던)

도시계획 · 주택

11. 센 강변 복원 및 정비사업 추진 (파리)

1.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높이기 위해 ‘혁신쿠폰’ 도입 (독일)

○ 독일에서는 산업, 수공업, 상업, 관광,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약 400만 명의 프리랜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이 중산층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 2006~2008년 통계에 따르면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이들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남. 연방 경제기술부는 중산층 형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보고 2010년 1월 중소기업을 위한 ‘9가지 중산층 경제정책’을 발표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 가능성 확대, ② 첨단기업 설립 시 모험자본 투입, ③ 공모전 실시 등으로 회사 설립 지원 및 가족기업 승계 지원, ④ 중소기업의 혁신력 지원, ⑤ 전문인력 확보 지원, ⑥ 외국시장 진출 지원, ⑦ 세 부담 경감, ⑧ 중소기업과의 대화 확대 등임.
- 2010년 5월 7일 연방 경제기술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쿠폰’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는 중소기업이 외부의 상담소에서 혁신에 관한 상담을 받을 경우 상담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쿠폰임. 이 제도는 네덜란드에서 몇 해 전부터 시행해 좋은 성과를 얻음.
 - 많은 중소기업은 제품 혁신 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 잘 알지 못함. 현재 독일에는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경제기술부의 위임을 받은 기업 혁신 상담소가 많이 운영됨. 이번에 도입된 쿠폰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높이고 상담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임.
- 혁신쿠폰의 지급 대상은 종업원 50명 이하, 연 매출 1000만 유로(약 149억 원) 이하의 기업임. 그러나 2010년 말까지는 예외적으로 종업원 100명 이하, 연 매출 2000만 유로(약 299억 원) 이하의 기업에게도 쿠폰을 지급함.
- 혁신에 관한 상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됨.

- 1단계: 회사가 가진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진단(회사의 잠재력 평가, 혁신 진행방식 추천, 혁신 아이디어 실현가능성 진단 등)
 - 2단계: 아이디어의 현실화를 위한 콘셉트 작성(시장 평가 및 분석의 기초 위에서 기술 평가, 기술 이전과 재정상황 조사 등)
 - 3단계: 프로젝트 추진으로 콘셉트 현실화(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혁신 프로젝트 평가와 결론 도출 등)
- 혁신을 시도하였지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은 연방 경제기술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inno-beratung.de)에서 무료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음.
(www.bmwi.de/BMWi/Navigation/Presse/pressemitteilungen,did=341668.html)
(www.inno-beratung.de/foepro/go/dokumente/go_flyer.pdf)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일본 오사카府)

- 일본 오사카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와 유관 산업의 진흥을 위해 2009년 6월 '전기자동차 실행 프로그램(단계: 2009~2012)'을 수립하고 급속충전 시설 20개, 전기자동차 1000대 도입을 목표로 함. '전기자동차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택시, 렌터카 등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하고 급속충전 설비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함.
- 오사카府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1회 충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짧지만 충전설비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다고 보고 2010년 4월부터 18개의 충전설비 시스템을 운영함. 태양광 발전설비도 함께 설치하여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해 충전하도록 하고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무료로 충전하도록 함.
- 향후 2단계 프로그램(2013~2015)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전기자동차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전기자동차 경주대회 등을 개최함. 3단계 프로그램(2016~2019)에서는 관서권(교토, 오사카, 고베, 나라)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에도 급속충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도로'를 정비할 계획임.

(www.pref.osaka.jp/hodo/index.php?site=fumin&pagelid=3284)

2. 아동 조기교육 향상을 위한 ‘Early Learn NYC’ 프로그램 시행 (뉴욕)

○ 뉴욕시는 아동 조기교육 확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Early Learn NYC’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임. 기존의 아동교육 시스템은 ① 더 나은 양질의 보육센터를 필요로 하고, ②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 취학 전 아동 보육이 문제가 되었으며, ③ 개별적인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적합한 조기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Early Learn NYC 시스템은 ① 기존의 아동교육으로 달성하지 못했던 아동 조기교육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②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③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시는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가정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임. Early Learn NYC은 생후 6주부터 만 6세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게 됨.

- 시는, 양질의 영·유아 교육이 장기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감정적, 신체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대비 교사의 수를 늘리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임.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자란 아이와 함께 교육받은 어린이의 발달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소셜 믹스(Social Mix)에도 관심을 기울임.

· 그 외에 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 ② 영아 보육에 대한 지원, ③ 교사를 위한 아동 발달 평가시스템 설계, ④ 커뮤니티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 등의 사업도 추진함.

- 시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어린이 교육에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영·유아 조기교육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더욱 다양한 행정적, 실무적, 지식 측면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www.nyc.gov/html/acs/html/pr_archives/pr10_04_06.shtml)

3. '런던 서베이' 결과, 시민의 83%가 삶에 만족 (런던)

○ 런던 시민들은 10년 전보다 런던에서의 생활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런던 서베이(London Survey)는 경기 침체와 큰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함.

- 조사결과에 의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10년 전인 2000년에는 7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2010년에는 83%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답변함. 런던이 살 만한 곳이고 밤에도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늘어남. 범죄와 치안 문제는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음.

· 이에 반해 시민은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 등에 강한 불만을 나타냄. 市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공사 시행 주체에게 신속한 공사를 유도하기 위해 분담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도로공사 허가제도'와 차로를 임대하는 제도(Lane Rental Scheme)를 검토 중임.

- 2010년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83%의 시민이 런던이 살 만하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임.
- 85%의 시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살 만한 장소라고 만족스러워 함.
- 76%의 시민은 야간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느낌.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치안상황에 대해 63%의 시민이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함. 하지만 42%의 시민은 강도사건 발생에 우려를 표시함.
- 42%의 시민은 도로여건 개선, 19%는 버스 운영체계 개선, 18%는 지하철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43%의 시민은 교통혼잡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램.
- 2002년 57%에서 2010년 70%의 시민이 야간에도 버스 이용이 안전하다고 느낌.
- 66%의 시민은 2012년 올림픽 개최가 런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londoners-feel-happier-and-safer-10-years-ago)

4. 학생의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해 직업 체험 프로그램 마련 (베를린)

○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의 직업에 대해 계획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베를린시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방향임. 이와 관련해 市는 학교 수업과정에 '경제·노동·기술' 과목을 신설하기로 하였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체험코스를 개발하여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행사를 개최함.

- 직업 체험코스는 市 교육부, 市 통합·노동·사회부, 연방 건강계몽청 주최로 지금까지 4개의 자치구에서 열렸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2010년 말까지 열릴 예정임. 체험코스는 약 500㎡의 면적에 영화상영장, 게임장 등으로 구성됨. 각 코스에는 행사진행 요원들이 배치되어 학생들을 안내하고 학생들 간의 대화를 유도하며 학생들의 적성을 평가함.

- 코스의 출발점은 영화상영장임. 이곳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상상하는 직업세계를 체험하고 미래의 직업세계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영화를 보여줌.
- 다음 코스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4개의 게임장임. 각 게임장에서 학생들은 15~17명씩 그룹을 만들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게 됨. 여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이나 자질(상상력, 수리력, 설득하기, 거래하기, 정돈하기, 다른 사람 돕기 등)이 요구됨. 행사 진행요원들은 과제를 해결한 방식을 보고 학생들에게 각자의 강점을 알려주는 스티커를 제공함.
- 마지막 코스에는 수작업, 상상력, 계산력, 동식물 다루기, 말하기, 조직 및 정리, 서비스로 분류된 7개의 공간이 설치되어 있음. 각 공간에서는 각각의 능력과 직업의 실제적 연관성을 제시함. 학생들은 게임장에서 획득한 스티커의 강점이 이제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강점과 일치하는지, 그 능력으로 어떤 직업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됨.
- 이 행사는 학생들이 급우들과 함께 체험함으로써 즐겁게 자의식을 발전시키고 실제로 학생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수준 높은 교육행사로 평가받음. 체험코스에서 발견한 강점은 학생들이 부모와 교사와의 대화나 학교 수업과정에서 일찍이 직업 선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 市는 또한 중·고교의 2010년 가을학기 수업 때부터 '경제·노동·기술' 과목을 신설하는 계획을 2010년 5월 발표함. 이 역시 학생들이 일찍 직업과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에게 커뮤니케이션, 소비자의 자세, 환경친화적 자원 투입 등에 대한 지식과 의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함임.

- 현재 계획된 수업내용은 중학교 1~2학년 과정,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과정 등 2가지임. 중학교 1~2학년 과정에서는 진로계획 등이 필수 이수내용이고 소비자를 위한 상품 제작, 의류, 식품, 지속가능한 경제, 재정과 소비가 선택 내용임.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현장실습이 추가되고 노동과 직업세계, 전기기술, 재료 가공, 건축과 주거, 영업 및 판매, 제품 제작 등의 내용이 추가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5/21/296445/index.html)

(www.komm-auf-tour.de)

영국 최초로 청소년의회 구성 (영국 뉴캐슬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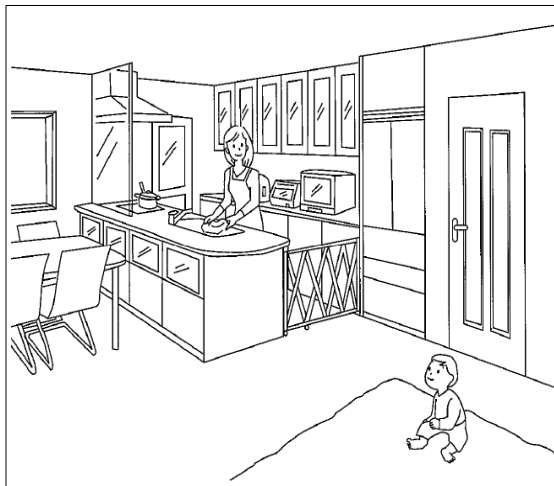
- 영국 뉴캐슬市는 영국에서 최초로 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청소년의회를 설립함. 市는 지역 청소년단체와 협력하여 13~19세 청소년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기로 함. 청소년의회 의원은 또래 청소년에 의해 선출되어 市 의사결정권자와 함께 활동하게 됨.
- 앞으로 청소년의회는 기존의 장년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 장년위원회는 중·장년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 기구임. 市는 청소년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신뢰감을 줄 뿐 아니라 市 정책결정자에게도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봄.

(www.newcastle.gov.uk/press.nsf/newsbyid/C0F52BF1499A7F9D802576F80036EE5D?opendocu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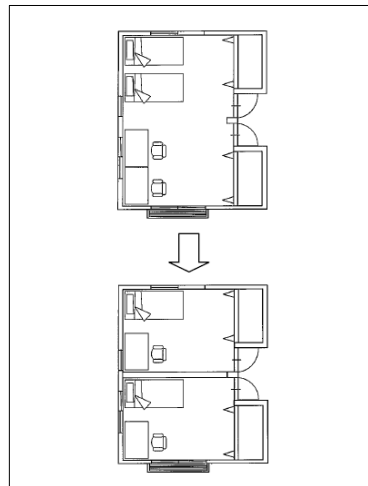
5. '육아를 배려한 주택 가이드북' 작성 (도쿄)

○ 도쿄都는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회를 만들고자 '육아를 배려한 주택 가이드북'을 작성함. 都의 2008년 출생률은 1.09명(일본 평균 1.37명)으로 낮은 수준임. 이에 都는 2010년 1월 '저출산 타파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보육, 의료, 고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 가이드북은 주택 건설사업자나 도민이 육아를 배려한 주택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임. 都 발표자료(2008년)에 의하면 가정 내 사고에 의한 0~4세의 사망자 수는 194명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56명보다 훨씬 많음.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설계구조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방을 분리할 수 있는 설계구조

- 가이드북은 ① 아이를 안전하게 기르기 위한 생활공간(21개 항목), ② 편리하고 기능적인 생활공간(12개 항목), ③ 가족 및 이웃과 어울리기 쉬운 생활공간(6개 항목), ④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배려한 생활공간(9개 항목)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주택을 설계할 때 참고해야 할 기법과 사례를 정리해 놓음.
- 가장 항목이 많은 안전설계 분야에서는 어린이 추락 방지, 주택 내부나 공용공간(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의 방법 및 방재를 위한 안전 설계지침을 꼼꼼히 정리해 놓음.

- 전체 내용 중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우선', 경제적 또는 공간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은 '추천'으로 나눔. 주택 공간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세밀하게 검토할 수도 있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5/DATA/20k5i201.pdf)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5/20k5i200.htm)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의 날' 행사 개최 (런던)

- 런던시는 어린이의 창조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린이 예술의 날'(Children's Art Day) 행사를 2010년 7월에 1주일 동안 개최할 예정임.

-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해 그림 그리기, 조각, 사진 촬영, 시각예술작품 및 영화 관람 등의 활동을 함. 이번 행사에는 예술가의 작품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작품도 전시되고, 박물관과 미술관도 어린이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임.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calls-londons-youngsters-join-childrens-art-day)

6. 市정부와 시민 간 파트너십 활성화 정책 추진 (영국 옥스퍼드市)

○ 영국 옥스퍼드市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市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시민과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한 토크백(Talkback) 패널정책을 추진함.

- 토크백 패널은 지역을 대표하는 10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되며 쓰레기 재활용, 반사회적 행동, 도시계획, 레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시민의 공론을 모아 市정부에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함. 토크백 패널은 매년 4가지의 설문조사를 하게 됨.
 - 市는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온라인 서베이’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를 공개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함.
- 市는 지역 주민들이 특정 이슈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Focus Group)을 편성함. 포커스 그룹은 8명으로 구성되어 각종 현안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수행함.
 - 최근 포커스 그룹의 주요 논의 과제는 거주자의 우선권에 관한 사항으로, 포커스 그룹에서의 논의가 예산을 배정하는 데 도움이 됨. 또한 이 그룹은 시민참여 웹사이트의 기능을 테스트하고 더 나은 시민참여 수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해줌.

(www.oxford.gov.uk/PageRender/decN/YourOxfordSpring2010.htm)

도 시 환 경

7. 건물 옥상에 '쿨 루프'(Cool Roof) 설치 장려 (뉴욕)

○ 뉴욕시는 여름철 건물 냉방 비용을 줄이기 위해 '쿨 루프'(Cool Roof) 설치를 장려하고 있음. 쿨 루프는 건물의 온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붕으로 흡수되는 태양에너지의 양이라는 데 착안하여 지붕을 흰색으로 칠해 태양열 흡수량을 저감하고자 한 종전의 방법을 더욱 발전시킨 것임. 주로 열 방사율이 높은 성분을 지붕에 얇게 뿌리거나 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렇게 코팅된 지붕은 70~90%까지 자외선과 적외선 에너지가 건물로 직접 흡수되는 것을 방지함.

- 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이상 절감하겠다는 시 정책목표에 부합될 뿐 아니라 난방비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드는 냉방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임.

- Cool Roof를 시공하면 ① 기온에 따라 자주 변화하는 지붕 온도로 인해 건물이 손상·노후되는 속도를 늦추고, ② 아스팔트나 기존의 건축자재로 마감된 건물로 인한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해주고, ③ 실내 냉방시스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기기의 수명 단축을 막으며, ④ 전력사용량을 줄이고, 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건물주가 Cool Roof를 설치할 경우 Cool Roof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환경센터나 그린 시티 포스와 같은 비영리단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음.

- 2009년 뉴욕 대도시권 중 상대적으로 지붕 온도가 높은 퀸즈 지역을 대상으로 엘 고어 전 부통령과 함께 Cool Roof 시범사업을 실시해 효과를 검증한 바 있음.
- 시는 2010년 9월까지 9만㎡ 이상의 지붕에 Cool Roof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펼침. 특히 지붕 온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공 지원, 건물주 교육 및 상담 등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www.nyc.gov/html/coolroofs/html/home/home.shtml)

8. 소형 화물차와 중·소형 버스도 ‘저배출 지역’ 진입 규제 (런던)

○ 런던시는 현재 일부 차량에만 적용 중인 ‘저배출 지역’ 제도를 2012년 1월부터 소형 화물차, 중·소형 버스에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2010년 5월 17일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함. 대형 화물차량보다 중·소형 차량 수가 많은 만큼 소유주가 차량을 정비하고 제도 도입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의견 수렴절차를 앞당겨 실시함.

-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소형 화물차와 버스 등은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에 맞게 차량을 정비하지 않으면 2012년 1월 3일부터는 저배출 지역에 진입할 때 벌금을 물어야 함.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7만여 대로 추정됨. 중앙정부가 차량 정비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던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중앙정부 예산을 적극 유치하여 차량 소유주를 지원할 계획임.

· 런던은 대기 중 미세먼지의 경우 2011년, 이산화질소는 2015년까지 유럽연합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이 과정에서 소형 화물차와 중·소형 버스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감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됨. 시는 따라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보다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섬.

- 의견 수렴은 6주간 진행됨.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분석한 후 제도 확대적용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임. 저배출 지역 제도는 2008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1단계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3.5톤 이상 화물차, 버스와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2단계를 시행 중임. 시는 차량 소유주와 화물회사와 긴밀하게 협조해 1,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5508.aspx)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plans-announced-tackle-pollution-londons-dirtiest-roads)

9. 대학과 대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카본 오프셋' 사업 시행 (일본)

○ 일본의 미에(三重) 대학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학내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과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가정에서의 감축량을 상쇄하는 '카본 오프셋'(Carbon Offset) 제도를 실시하기로 함. 가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에 대해 대학이 에코포인트를 발행하고 이 부분을 학교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것임. 일본 환경성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분 거래는 기업에서는 일반적이나 가정에서 거래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힘.

- 미에 대학에서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계획에 카본 오프셋 사업도 포함시킴.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등으로 얻어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은 전년도의 전기, 가스, 수도요금 명세서와 비교하여 계산되며 감축량에 따라 에코포인트가 부여됨. 이 에코포인트는 학교 매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음.

· 대학당국은 재학생과 졸업생 등 약 6000명이 참여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3.2%(감축목표의 10%)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함. 이 때 발행되는 에코포인트는 이산화탄소 1kg당 재학생 2엔(약 28원), 졸업생 1엔(약 14원) 상당의 가치를 가짐. 에코포인트는 연간 약 400만 엔(약 54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전액 대학이 부담함.

- 대학은 이 사업을 2010년 가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할 계획이며, 2011년 4월에는 IC 학생증과 직원 신분증을 새로 발급하고 가정에서의 카본 오프셋을 본격 실시할 예정임. 카본 오프셋 사업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가정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며, 향후 다른 환경문제나 의식 개혁에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됨.

(요미우리신문, 2010. 5. 1)

10. 도시를 대표하는 미래지향적인 버스 디자인 발표 (런던)

○ 런던시는 런던을 대표하는 새로운 버스 디자인의 최종안을 발표함. 청정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되어 2012년부터 운영될 버스에 21세기 런던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적용됨. 새로운 버스는 디자인만이 아니라 연료 효율이 기존 하이브리드 버스보다 15% 더 높고 기존 디젤 2층 버스보다 40% 더 높음. 특히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디젤 버스보다 각각 40%와 30% 적고, 소음과 진동도 적음.

- 디자인 측면에서 새 버스는 ① 경량 재료, ② 개방감을 제공하는 유리창, ③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버스 외관, ④ 극적인 느낌을 주는 내부 계단 등의 특징점이 있음. 또한 출입문이 3개가 있어 승객의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버스 디자인은 런던 교통국이 다른 기관과 공동 작업한 것임. 특히 버스 안에 있는 2개의 계단은 승객들이 2층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버스 뒷면에 있는 플랫폼 문은 개폐가 가능해 피크 타임 때 이용할 수 있음.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unveils-iconic-final-design-london%E2%80%99s-new-bus)

市 공식 역사 안내책자 ‘그린 북’ 발간 (뉴욕)

- 뉴욕시는 뉴욕의 역사 및 발전사에 관한 안내책자인 ‘그린 북 2010’(Green Book 2010)을 2010년 6월 10일자로 발행함. 市가 매년 발행하는 그린 북은 연방정부, 市정부, 5개 區 등으로부터 주요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책자에 수록함.

· 그린 북은 1918년에 최초로 출간되었으며 ① 뉴욕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② 정치경제상의 변화, ③ 인구 변화, ④ 부동산 현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http://nyc.gov/html/dcas/html/features/greenbook.shtml>)

11. 센 강변 복원 및 정비사업 추진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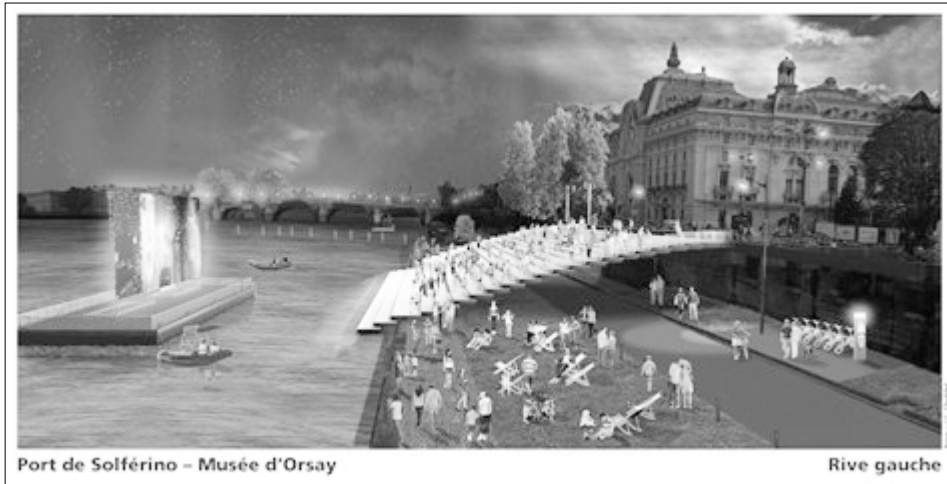
○ 파리는 2010년 4월 14일 ‘강변길 되찾기’란 이름으로 센 강변 정비계획을 발표함. 이번 계획은 좌안과 우안으로 나누어 두 지역에 다른 사업이 적용됨. 좌안 지역은 2km 이상 되는 자동차 강변도로를 없애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상설 여가활동 공간이 들어서게 됨(사진 참조). 우안 지역에는 자동차도로가 들어섬.

- 이번 계획은 자동차 길과 보도(步道)를 서로 조화롭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음. 市는 ①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자동차 운행속도를 줄이고, ② 차도의 넓이를 줄이고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이 강변에 쉽게 진입하도록 하며, ③ 새로운 문화시설을 강변 곳곳에 설치할 계획임.

· 전체 정비계획 예산을 살펴보면 우안 지역에는 공공공간 신설 및 도로 교체비용으로 700만 유로(약 105억 원), 좌안 지역에는 ① 스케이트장 등 스포츠시설, 공원, 미술관 앞 노천극장, 인터넷이 연결되는 학습공간 설치와 도로공사비용으로 1150만 유로(약 172억 원), ② 인공섬 등 부유공간 설치비용으로 1200만 유로(약 179억 원), ③ 다리 정비비용으로 900만 유로(약 134억 원) 등 총 4000만 유로(약 598억 원)를 투입할 계획임. 이밖에 정원, 놀이터 등의 유지비용으로 매년 200만 유로(약 3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계획은 2008년 교통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후 수립됨. 市는 2010년 6월까지 각 구청장과 하천 전문가와 논의한 후 7월 市의회에서 정비계획 방향과 원칙, 향후 연구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市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네티즌으로부터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음.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이지만 파리 근교에서 도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거나 대규모 공사에 따른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市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여 질문, 문제 제기, 제안 등에 대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음. 이번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2012년 여름에는 예전의 강둑길을 되찾은 센 강변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www.paris.fr/portail/viewmultimediacdocument?multimediacdocument-id=82868)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83287&portlet_id=21961)

신축건물에 태양열 온수기 설치 추진 (상하이)

- 상하이시는 신축건물에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할 계획임. 6층 이하 신축주택이나 온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공건물의 시공업체는 표준화된 태양열 온수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최근 마련함.
- 市는 태양열 온수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가구당 온수 수요량의 60% 정도를 담당하고, 가구당 에너지 소비비용을 연 600위안(약 11만 원) 절감하며, 200kg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3.xinhuanet.com/chinanews/2010-05/13/content_19774151.htm)